

비상시에 재해로부터

애완동물 주인 여러분께

신주쿠구는 2003년 9월 19일에 도쿄도 수의사회 신주쿠 지부와 재해 시의 동물 구호 활동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신주쿠구는 재해 시에도 사람과 애완동물의 안전을 고려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진행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족과 애완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에 의논하여 준비해 둡시다.

애완동물을

지키기 위하여



신주쿠구 보건소 · 위기관리과
도쿄도 수의사회 신주쿠 지부

재해 발생 시의 안전 확보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사람과 애완동물 모두 먼저 생명을 우선해야 합니다. 집의 내진화 및 가구 전도 방지 등의 대책을 마련해 둡시다.

대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광역대피장소' 로 대피합니다. 또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경우에 대비하여 집합 장소를 여러 군데 정해 두고 NTT의 재해 전연 다이얼 '171' 을 이용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등 대책을 상의해 두십시오.

【대피소】

집이 불타거나 무너져 자택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사람과 애완동물의 일시적인 생활의 거처가 되는 곳이 대피소입니다. 가까운 구립 초·중학교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장소를 확인해 두십시오. 애완동물이 다친 경우는 동물병원에서 치료해야 합니다. 근처 동물병원도 조사해 두십시오. 또한 애완동물을 일시적으로 돌볼 수 있는 친구나 친척 등도 필요합니다.



【자택이나 근무처에서 대피소까지의 경로】

재해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대피소까지의 경로를 몇 군데 생각해 둡시다.

※ '신주쿠구 대피장소 지도' 를 위기관리과·구립 방재센터·특별 출장소에서 배포하고 있으므로 이용해 주십시오.

애완동물을 위한 방재용품

대피소에서는 사람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애완동물에 대한 준비는 기본적으로 주인이 책임을 지고 갖춰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용품을 준비해 둡시다.

- 1 애완동물의 식사와 물 (5일간 정도)
- 2 애완동물의 배변용품 (애완동물 시트나 고양이의 모래 등)
- 3 애완동물의 상비약
- 4 대피소에서 사용할 애완동물 케이지·울타리·목줄·몸줄 (고양이에게도 필요)
- 5 등록인식표·광견병 예방접종확인표 (개의 경우)·미아방지표 등의 신원 표시
- 6 애완동물의 사진 여러 장 (애완동물을 찾을 때에 필요)

애완동물 훈련

대피소에서는 서로 기분 좋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매너를 지킵시다.
애완동물이 훈련되어 있으면 주위 사람들과 주인 모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평소에 아래의 사항에 주의하여 훈련해 두면 좋습니다.

【개의 경우】

- 주인의 지시를 지키고 쓸데없이 짖지 않게 한다 .
-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
- 케이지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
- 용변은 지정된 곳에서 본다 .

【고양이의 경우】

-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
- 케이지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
- 용변은 지정된 곳에서 본다 .

【그 밖의 동물의 경우】

대피소에서는 파충류나 양서류 등의 애완동물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특수 애완동물의 주인 여러분은 애완동물 수용소를 평소에 찾아 두십시오 .

대피소 생활은 사람과 동물 모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예전에 애완동물이 주위 사람을 무서워하여 배설을 하지 않거나 먹이를 먹지 않기도 하고 , 심하게 짖거나 사람을 물어 대피소를 나가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 싫어하는 사람 ·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므로 애완동물이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될지 ,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주인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



개체 인식 (신원 확인) 재해 시에는 주인과 애완동물이 뿔뿔이 흩어져 함께 대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 애완동물을 찾기 위해서도 개체 식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개체 식별방법에는 등록인식표 (개의 경우) · 미아방지표 · 목걸이 · 리본 · 마이크로 칩 등이 있습니다만 , 항상 장착하고 있고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이크로 칩이 효과적입니다 . 마이크로 칩은 동물의 목 피부 아래에 전용 주사기로 삽입합니다 . 개 · 고양이뿐만 아니라 그 밖의 동물에게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장착하면 반영구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



준비해 두어야 할 대피용품

【비상반출품】

배낭 등에 대피 시 필요한 물품을 정리하여 들고 나가기 쉬운 곳에 놓아 둡시다.

식료품, 음료수, 휴대 라디오, 손전등, 예비 건전지, 양말, 목장갑, 수건, 상비약, 생리용품, 화장지, 비닐봉지, 예비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휴대전화 충전기, 성냥이나 라이터, 운동화 등은 머리맡에 놓아 둡시다.

그 밖에 고려할 사항으로 배낭이 너무 무거워지면 메고 대피할 때에 부담이 됩니다. 성인 기준 약 6~8kg 정도가 적당합니다.



【비상용 비축품】

- 재해 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식료품을 1인 5일분
- 정전에 대비하여 → 손전등, 양초, 성냥, 라이터, 예비 건전지
- 가스 정지에 대비하여 → 휴대용 가스레인지, 고체 연료
- 단수에 대비하여 → 음료수 1인 1일 3리터를 기준으로
- 정보 수집을 위해 → 휴대 라디오, TV

위와 같은 물품을 비축해 둡시다.



【방재 준비품】

재해 후의 화재나 가옥 붕괴에 대비하는 것으로

-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삼각 소화수통·욕조물 받아놓기 등.
- 대피·구출에 대비하여
대피용 로프, 대피 사다리, 삼, 톱, 방수 시트 등



비상시에 재해로부터 애완동물을 지키기 위하여

발행일 2013년 9월 (초판 2005년)

편집·발행 신주쿠구 보건소·위기관리과
도쿄도 수의사회 신주쿠 지부

연락처 신주쿠구 보건소 위생과 전화: 5273-3148